

“자비 정신으로 성역화 불사 원만성취”

종정 진제 스님, 종단 성역화불사기금 2억원 쾌척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단 성역화 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아름다운동행은 5월 11일 “종정 진제 스님이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름다운동행에 종단성역화불사기금으로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2011년 이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를 빠지지 않고 기부를 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온 누리에 가득해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역화 불사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불사가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종단 성역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한 기념관과 불교문화 체험관 등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5일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닦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서울시, ‘강남 라데팡스’ 개발 재고해야”

범용 스님, 5월 9일 기자회견... 서울시에 질의 공문

서울시가 강남 일대를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일명 ‘한국관 라데팡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개발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범용 스님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범용 스님은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질 의서에서 △철학과 테마가 부재 △현대 차 GBC에 지나친 배려 △지질 등 건조물의 안전 △역사와 인문 가치 부재 △교통안 장애, 미래성 부재로 원점서 재 검토 필요 등 5개항의 문제를 질의했다. 스님은 “서울시가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코엑스-삼정역-현대 차GBC 구간에 복합환승센터와 지하도시를 개발하는 ‘한국관 라데팡스’ 사업 추진을 밝혔다”면서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40년간 조성됐다. 지하에 지하도, 지하철, 국철, 고속철도 등 18개 교통 노선과 주차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구상은 고려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콩도르팡-상제리제-개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에 놓여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1천 년 역사의 봉은사를 지적에 두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별도의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사업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지하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범용 스님에 따르면 강북과 달리 강남의 지하 기반암은

‘연암(Soft Rock)’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뤄진 강남 개발에서도 대규모의 매립이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하 6층 구조의 세계 유례없는 환승센터 개발은 여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지하 내 사고나 화재 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들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게 범용 스님의 비판이다. 범용 스님은 “지하 5m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을 중력을 무시하고 자연적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지하 6층의 공간에서 하루 수십 만명이 내뿜는 독소와 기차·버스·각종 설비의 내연기관이 발생하는 오염물질,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수증기 등에 대한 처리를 단순히 오픈된 공간 계획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사업대상지 주변의 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대 GBC가 들어 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며 지하 6층 규모라고 해도 주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범용 스님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일대 혼잡은 자명하다”면서 “결국 현대GBC 건설 진행에 병행하려는 임의적 변칙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없는 단순 토건 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1970~80년대 ‘산업화시대’로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범용 스님은 “서울시가 강남 지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류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문·역사가 가미돼야 한다”면서 “본 사업에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공간은 봉은사 일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용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의 질 의서를 5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송했다. **신성민 기자**

이것을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게 범용 스님의 비판이다.

범용 스님은 “지하 5m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을 중력을 무시하고 자연적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지하 6층의 공간에서 하루 수십 만명이 내뿜는 독소와 기차·버스·각종 설비의 내연기관이 발생하는 오염물질,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수증기 등에 대한 처리를 단순히 오픈된 공간 계획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사업대상지 주변의 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대 GBC가 들어 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며 지하 6층 규모라고 해도 주

변 일대 혼잡은 자명하다”면서 “결국 현대GBC 건설 진행에 병행하려는 임의적 변칙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사 동자승 “종교 넘은 평화를” 조계사 동자승들이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을 방문, 이슬람교 유치원 아이들과 사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자승들의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 방문은 11일 진행된 프린스 술탄 이슬람학교 학생들의 조계사 방문에 대한 답례다. 동자승들은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배소를 견학하는 등 이슬람교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김종규 이사장 전국신도회장에 임명

종정 도용 스님, 5일 임명장 전달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 대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前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이 천태종 전국신도회장에 임명됐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5일 서울 관문사서 전국신도회장에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 에너지 대표를 각각 내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취임식 일정은 향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김종규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교시를 통해 “전국신도회의 위상에 걸맞게 신도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용 스님은 “천태종의 사람을 중요시 여겨 10명이 1명에 매달려 가르치고 키운다. 필요하다면 1000명이 1명에 매달려 인재를 양성할 정도로 막중한 책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며 “상원각대조사님 열반대제에 전국의 신도들이 모두 참석하니 그때 신도들에게 회장으로 서 공신인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규 전국신도회장은 “스님들은 세수와 법음이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갓 출가하면 1살 짜리가 되는 것”이라며 “신도로서 그간 활동했지만, 막상 소임을 맡고 보니 천태종에서

불교문화재 장물 은닉한 사립박물관장 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5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반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해 검찰 및 피고인 권모씨 측에서 각각 상소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 측에서 무죄를 주장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은닉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보관 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반 판결에 대해 조계종은 “2심에서 불법 ‘은닉’ 행위가 유죄로 선고됐다. 이는 문화재의 불법 ‘은닉’을 유죄로 규정된 거의 최초의 판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산회상도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김종규 이사장 전국신도회장에 임명

종정 도용 스님, 5일 임명장 전달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 대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前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이 천태종 전국신도회장에 임명됐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5일 서울 관문사서 전국신도회장에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 에너지 대표를 각각 내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취임식 일정은 향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김종규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교시를 통해 “전국신도회의 위상에 걸맞게 신도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용 스님은 “천태종의 사람을 중요시 여겨 10명이 1명에 매달려 가르치고 키운다. 필요하다면 1000명이 1명에 매달려 인재를 양성할 정도로 막중한 책

‘공덕 저금통’으로 탄자니아에 法香을

아름다운동행·봉은사, 보리가람교 기금 마련 위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12일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마련 모금함’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 설치했다.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보리가람학교는 불교계 최초로 탄자니아 경제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 건립된다. 이에 따라 많은 재원이 소모되는 만큼 봉은사는 ‘공덕 쌓는 저금통’ 1호를 경내에 설치해 적극적인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봉은사 사회국장 원장 스님은 “종단에서 최초로 탄자니

아에 학교를 건립하는 데 봉은사도 함께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특히 개교가 얼마 남지 않아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봉은사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심심일만으로 동참이 늘어날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공덕 쌓는 저금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캠페인으로 모인된 기금은 보리가람학교 책걸상, 컴퓨터, 농기계 등 기자재 구입에 사용된다. **윤호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중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종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교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무송**

원로위원 석종인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해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혜령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해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해		

법인이사 **석체법** **석익두** **석성만** **석성우** **석경만** **석현공** **석청우** **석문공** 감 사 **석선화** **석성덕**

창원중앙총무원장 석경강	영덕중앙총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총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총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총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총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총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총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총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총무원장 석현공	광주중앙총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총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총무원장 석덕진	계주중앙총무원장 석의공	인천중앙총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총무원장 석일지	풍기중앙총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총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총무원장 석대성	울산중앙총무원장 석법운	부천중앙총무원장 석원해

총무부장 석도홍	교 육 부 장 석정허	사 회 부 장 석청암	호 법 부 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 무 부 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 화 부 장 석도용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 서 국 장 석성덕	사 서 특 보 석법수	기 획 국 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총 무 국 장 석보각	연 수 국 장 석함월	비 구 니 국 장 석지현
봉사국장 석성호	포 교 국 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림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 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종림예술원 원장 모 각(이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해공 포교국장 석법정 종림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무국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포항국장 헤림 재무부장 자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원장 법광 국제국장 도원 대전부장 정민 전남부장 해민 포교국장 청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총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복지국장 석용운 관리국장 석지도 규정국장 석성공 총무국장 석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국장 석경담 의식국장 석운담 조직국장 석건성 사정국장 석도운 의전국장 석운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운영이사 청강. 도명. 일현. 청암. 혜천. 의공. 법수. 성덕. 해화. 학산. 법광. 자운. 헤림. 혜명. 이화진. 김원석. 김연우. 이혜경. 이미희
--	---	---	--	--

- **충남원장** 보인
- **부산국장** 혜성
- **경기부장** 덕산
- **화순국장** 보정
- **충북국장** 덕은
- **포항원장** 명성
- **울산국장** 상문
- **대구부장** 성호
- **충북국장** 석동운
- **지도국장** 석정호
- **조계국장** 석원호
- **재무국장** 석노담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 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